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4,17)고 외치셨다.

이 선포의 근원은 아버지 하느님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을 내어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을 아픈 이들을 치유하고 죄를 용서하며,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내어 주신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의 깊은 의미와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펼치신다.

예수님의 행보와는 달리, 옛 것에 머무르는 이들은 예수님께 저항한다. 그들도 자신들의 아버지(조상들)로부터 전해 받은 율법과 가르침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해 받은 율법과 가르침의 열매는 차별과 폭력으로 나아간다. 그들의 행실은 거짓의 아비이자 살인자로부터 왔기 때문이다(요한 8,44). 아버지의 뜻을 펼치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걸림돌이 되는 그들의 행실이 이를 보여준다(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안식일 논쟁이 있었을 때, 세리와 같이 죄인들과 함께하실 때, 단식 논쟁이 있을 때, 조상들의 전통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실 때). 그들은 예수님과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핑계 삼아 움아매려 하였고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한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도 그러하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포도밭 소작인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다. 포도밭 소작인들이 포도밭 주인처럼 행사하며 포도밭 주인이 보낸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포도밭 소작인들의 행동은 포도밭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도 이어진다. 포도밭 소작인들은 포도밭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모의할 뿐만 아니라 포도밭 주인의 아들을 죽인다. 이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행사된 폭력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도 함께 보게 된다. 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서는 다시금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선사하신다. 폭력에 더 큰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신다. 그리하여, 모두가 내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어 우리가 진정 나아가야 하는 반석이 되신다.

오늘 복음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며 이렇게 질문해 본다.

나는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어떻게 세상에 전하고 있는가?

덧붙여 이번 주는 군인 주일이다.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 하나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길을 나선 이들을 기억하는 날이다. 직접 위문하거나 교육하러 현장을 가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장병들이 있기에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낀다.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사 청해 본다.



김승태 마티아 신부 | 군종(명월성당)



제 1 독 서 이사 5,1-7
화 답 송 ©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제 2 독 서 필리 4,6-9
복 음 마태 21,33-43

주일 진례

하느님은 첫째, 나는 셋째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시골의 어머니가 도시에 사는 아들 집을 찾아갔다. 며칠 지냈는데, 자기를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좀 이상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집에 서열이 있어 보였다. 1번은 며느리, 2번은 손주, 3번은 남편, 4번은 강아지, 5번은 파출부, 그리고 자기는 6번 정도 되는 것 같았다.

속이 상한 어머니는 아들 집에 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들 앞으로 “3번아, 6번은 집으로 간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돌아왔다. 그 메모를 먼저 발견한 며느리는 웃으며 “흥! 자기가 6번이라고? 진짜 6번은 친정어머니인데.”라고 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인가라는 율법 학자 한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마르 12,29-31)

첫째 계명은 신명 6,4-5로, 유대인들이 셰마shema라 부르면서 늘 마음에 새겨 두는 내용이었고, 둘째 계명은 레위 19,18로 유대인들이 지켜나가야 할 규칙이었다. 그야말로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고 했으며(마태 22,40), 또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다(마르 12,33)고 했다.

첫째와 둘째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다. 예수님은 작은 이웃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당신께 해준 것이라고 하셨다(마태 25,40).

우리는 신앙인이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설정해야 한다. 그것은 ‘첫째는 하느님, 셋째는 나’라는 원칙이다. 그러면 당연히 둘째는 누군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둘째는 누구이겠는가? 둘째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이웃이다. 사도 바오로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로마 13,8)라고 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첫째나 둘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까지 하셨다. 또 열두 제자들도, 사도 바오로도, 성인 성녀들도, 순교자들도 모두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다.

10월은 묵주 기도 성월聖月이며, 전교의 달이다.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요즈음, 주변 사람에게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칠 일이 아니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느님을 알게 해주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 주어야 한다. 몸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열을 재며 명부를 작성하고 모임을 자제하면서도 마음이 가까워지는 삶도 살아야 하겠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직접 다가가 도움을 준 착한 사마리아인(루카 10,33-34)처럼 말이다.

이것은 ‘하느님은 첫째, 나는 셋째’라는 원칙대로 사는 것이 된다.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

군인 주일을 맞아 본당 신부님들과 신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요약)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본당 신부님들과 신자 여러분!

저는 올해 군인 주일을 맞아 담화문 대신, 전국의 모든 본당 신부님들과 신자 여러분께 직접 드리는 호소 형태의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전파의 큰 업적을 남기신 사도 성 바오로께서는 흥미롭게도 당신이 지극히 사랑하고 신뢰한 사도 티모테오를 군인으로 간주하면서 복음전파에 투신하라고 권고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2티모 4,2-5)

사도 성 바오로와 같은 생각으로 군의 복음화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이 바로 군인 신분의 군중 사제들입니다. 저는 저희 군중 사제들의 군에 대한 구원의 말씀 선포와 군 신자들의 영신 생활을 돌보는 수고와 희생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말부터 시작하여 2월 중순부터 무서운 기세로 확진자와 사망자를 늘리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저희 군중 사제들과 군종교구에서 사목하는 수녀님들과 병사들에게 교리 봉사를 하는 평신도 선교사들과 저는 복음화 수행에 너무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희 군종교구는 일반 교구와 달리 군 당국의 매우 엄격한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하기에, 일반 교구보다 더 오랜 기간 주일미사 중지 및 여타 교회 활동 중지를 겪게 되었습니다. 올해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미사를 포함한 교회 활동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군 신자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3년 간 군 세례자가 많이 줄어 고민을 해왔는데, 올해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 군 세례자가 전에 비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견진성사 수혜자도 9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적인 면에서 그리고 재정적인 면에서 참 어려운 한 해가 되고 있어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게다가 올해의 군인 주일은 추석 명절 연휴 마지막에 있게 되어 어려움이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군종교구의 일 년 예산 대부분이 이 군인 주일에 전국의 신자 여러분이 봉헌하는 2차 헌금에서 옵니다. 추석 명절이라 군중 신부님들이 본교구에 운전하여 가는 것도 어렵지만, 군 당국도 이 전염병 때문에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고, 신부님들도 멀리 여행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주일 미사 봉헌을 위해 방문한 지역에 만약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그 군중 신부님은 부대에 돌아와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중 신부님들이 올해 군인 주일에 본교구의 본당에 파견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올해 군인 주일에 신부님들을 본교구나 혹은 요청에 의해 본교구가 아닌 다른 교구에 파견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군종후원회 봉사자들이 여러 본당에 파견되어 봉사하는 것도 사실상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의 모든 본당 신부님들과 신자 여러분께 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면서, 2차 헌금을 변함없이 내그러이 해 주시고, 군종후원회의 후원회원 모집에 보다 많은 신자분들께서 응답해 주시길 호소하는 마음으로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 어려움 속에 제53회 군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전국의 본당 신부님들과 신자 여러분께서 군 복음화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본당 신부님들과 신자 여러분! 코로나19의 위협에서 건강을 잘 지키시고, 이 시련의 때에 오히려 성화의 길로 더욱더 나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새 회칙

김종훈 엠마누엘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인류의 생태적 회개와 형제애」를 주된 주제로 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세 번째 회칙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언론은 10월 4일 성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축일에 발표되리라 예상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회칙은 코로나 사태 이후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대처가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교황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코로나 질병 이후의 사회에 적합한 건설적인 기구의 필요성과, 창조의 보존과 다른 이들을 위한 책임, 그리고 인류의 형제애를 위한 증진에 관한 것을 피력하실 예정입니다.

공식적인 언급은 없으나, 회칙의 근본 주제는 ‘인류의 형제애’입니다. 이 주제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가르침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주제인 인간과 생태적 회개’를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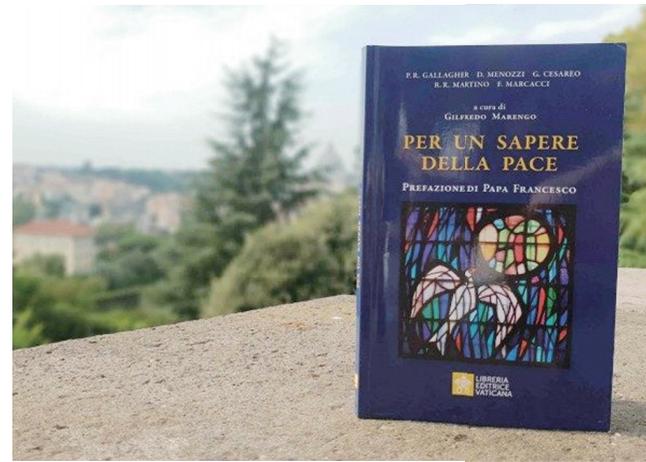
바티칸의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무성 장관 파롤린 추기경은 “교황님의 새 회칙의 틀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진리 안의 사랑」에서 발전시켰으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에 뿌리내린 것입니다. 베네딕토 교황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는 연대성뿐 아니라 인류의 형제애로 표현할 수 있는 선물과 봉사의 원칙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통합적 생태학’, 즉 환경, 경제, 사회, 문화, 영성적 맥락에서 총체적인 인간 발전의 주제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교회의 사회 교리는 근본과 지향의 연대를 인식하는 가운데, 일관되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인류 문제에 응답하기 위해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팬데믹은 전체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과 그 안정성에 가공할 만한 충격”을 주었으며, 그 충격이 초래한 “실업 문제는 극적인 국면에 처해 있으며, 공공 의료 문제는 건강 정책과 교육 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의 역할은 국제적 관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세계가 “인류 가족으로서 대단히 어려운 여정 앞”에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 여정에 “동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음을 충분히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교황님께서는 일반 알현의 한 강론에서 ‘생태적 회개’의 절실함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이 위기 안으로 우리를 밀어 넣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후에 인류는 절대 같아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나아지든지, 아니면 더 나빠지든지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왜 나와 다른 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까?”

교황님께서는 최근 바티칸 출판사에서 발간된 「평화 교육」 지침서 서언에서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왜 나와 다른 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까?”

오늘날 세계는 ‘전쟁과 서로 간의 폭력의 징후’로 인한 ‘고통스러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 현실은 우리에게 평화에 대한 갈구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질문을 하게 합니다.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참으로 많은 경계가 허물어진 이 세계화 시대에, 왜 우리는 개인이나 공동체 간에 관계를 폭력으로 물들게 하고 있습니까?” “왜 각국의 정부들은 전쟁 행위를 통한 힘의 우위만이 그들의 시민의 눈에 확실한 안정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출처: 바티칸 뉴스

교황님께서서는 이러한 경고를 단순한 외침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러한 교황님의 의지를 현실에 옮기는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는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Dicastery for Promoting Integral Human Development, 약칭: 인간 발전부)가 있습니다. 이 〈인간 발전부〉는 2016년 8월 31일 교황 프란치스코의 자의교서 「인간 발전」(Humanam Progressionem)에 의해 설립이 발표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 교황청의 특별 부서입니다.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교황청 사회복지평의회,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등 4개의 평의회를 통합한 이 부서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사회 교리를 전파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 특히 전쟁 희생자와 난민, 병자들의 합당한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의교서에서 “이 부서는 무엇보다 이민, 궁핍한 이들, 아픈 이들, 배척된 이들, 사회적으로 차별된 이들, 무력 분쟁과 자연재해의 희생자들, 감옥에 갇힌 이들, 실업자들, 모든 형태의 노예살이와 고문의 희생자들에 관한 문제들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서의 수장은 가나 출신의 피터 텍슨(Cardinal Peter K. A. Turkson) 추기경입니다. 추기경은 지난 9월 8일 영국 주재 카자흐스탄 대사관의 후원으로 런던 소아스 대학(SOAS, 아시아 아프리카 연구 대학교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이후의 다자간 협력: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 참가하였습니다. 이 세미나는 인터넷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 추기경은 세계 평화를 위한 네 가지 차원의 교회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추기경은 “먼저 핵 실험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교황님께서도 “핵무기는 국제적 문제로서 모든 국가에 도발적인 영향을 미치며, 미래 세대와 우리의 집인 지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세미나를 후원한 카자흐스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미 1,400여 개의 핵탄두가 지역 내에 산재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군비 축소와 비확산 문제 해결의 선두에서 있으며, 그 결과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비핵무기 지대’가 될 것이라는 고무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추기경은 전쟁 역지력에 관해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할 새로운 전쟁 무기를 생산하면서 어떻게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강하게 질타하신 교황님의 말씀을 상기 시켰습니다.

셋째로, 추기경은 평화 구축을 위한 폭넓은 현 상황에서 군비 축소 문제를 다루는 대화의 지속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국제 전쟁 중지를 위한 공개 지지’를 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지는 다른 한편으로는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즉각적으로 무기 생산과 거래를 동결할 필요성을 강하게 권고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결〉 캠페인을 강력하게 지지하였습니다.

추기경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화를 향한 갈망’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에 국제적으로 대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국제적 문제는 국제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다자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 연대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제적 연대 개념은 단순히 국가 차원뿐 아니라, 공동체에 몸담은 개인의 응답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로의 만남을 지속하고 대화를 이어 갈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평화 구축을 위한 ‘개인의 응답’과 관련하여, 「평화 교육」 서언을 통해 교황님께서서는 “우리는 실제로 우리 시대의 사회, 경제, 정치적 역동성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잘 준비된 인재”가 양성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교황님께서서는 특별히 “평신도의 성소는 가족뿐 아니라, 사회, 정치적 관용에 방향 지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평신도의 소명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신앙이 뒷받침된 참여입니다. 이것은 평화, 화합, 정의, 인권과 자비의 증진을 위한 작업이며, 이 세상 안에 하느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을 실천”하는 것임을 강조하시면서, 이를 현실 생활 속에 늘 기억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기억할 선종 사제
 김해동(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
 1975년 10월 6일

견진성사

일시: 10월 7일(수)
 장소: 복신동성당
 집전: 교구장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일시: 10월 11일(주일)
 장소: 수산성당
 집전: 박정일(미카엘) 주교

본당사목방문

일시: 10월 6일(화)
 본당: 반송/ 가음동

 일시: 10월 8일(목)
 본당: 망경동/ 옥봉동

교구/본당

2021년 복학 신학생 피정
 일시: 10월 9일(금)~11일(주일) 2박 3일
 장소: 가톨릭마산교육관

3차 청년교리 연수
 일시: 10월 10일(토) 14:00~11일(주일) 14: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
 대상: 가톨릭 신앙을 가진 모든 청년
 참가비: 1인 6만 원
 주제: 교회의 시선으로 세상 바라보기
 신청: 10월 4일(주일)까지,
 선착순 20명 마감(전원 1인실)
 준비물: 필기구, 미사 준비, 세면도구(수건),
 텀블러, 마스크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 검색

예신, 여성소 모임

일시: 10월 11일(주일)
 장소: 고등부 - 지구별 모임
 중등부/ 여학생 - 온라인수업
 문의: 성소국 055·249·7061

수도회

렉시오 디비나 피정 (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 유덕현 야고보 아버스와 함께하는
 자연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일시: 매주(토) 14:00~(주일) 14:00 1박 2일
 장소: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010·2816·1986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모집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장소: 골롬반 평신도 선교사 센터
 (서울 동선동)

문의: 노혜인 안나 선교사 010·3817·0567

기타

예수마음기도 영성 수련(권민자 수녀)

일시: 1박 2일 - 10월 24일(토)~25일(주일)
 11월 7일(토)~8일(주일)
 3박 4일 - 10월 29일(목)~11월 1일(주일)/
 11월 26일(목)~29일(주일)
 8박 9일 - 10월 12일(월)~20일(화)/
 11월 16일(월)~24일(화)
 40일 - 10월 6일(화)~11월 14일(토)
 12월 22일(화)~21년 1월 30일(토)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2021학년도 학교법인 성지학원
 중등학교교사 임용경쟁시험 공고**

2021학년도 학교법인 성지학원 중등학교
 교사 정규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국어(1)·영어(2)·가정(1)·
 지구과학(1)·일반사회(1)
 근무예정학교: 성지여중·고, 해성중·고
 응시원서 및 접수: 10월 19일(월)~23일(금)
 09:00~18:00, 5일간
 문의: 055·240·8884
 ※ 구체적인 시험일정 및 방법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성지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 참조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10월 10일(토) 14:00	도심 속 침묵의 공간 (창원)마음의 집	010·2000·4131	침묵가운데 하느님이 전부이고 싶은 미혼여성

백합식품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장맛
 수녀원 매주,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백합식품본사 053)857-2037
 서울 02)02-2202-8392
 대구 053)257-1771
 www.spcfood.co.kr

더편한요양병원
 수술 후 재활, 암요양, 교통사고 입원
 장기요양, 노인성질환(치매·중풍)
 (최상의 자연환경과 최신시설, 모든 병동 개별욕실)
 이사장 한 정 진(요한)
 055)606-7722, 010-9210-6860
 위치 : 마산진동 한백자동차운전학원 앞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40년 전통 <팔보효소>
 PALBO 생활절식 · 효소단식
 ▶미·중국 수출 ▶부모님 건강 선물
 ▶간헐적단식 ▶해독요법 ▶효소피장
 ▶지리산 산청 발효 · OEM 전문
 www.palbo.co.kr ☎1600-0830

영적 성장의 길1-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올 때 기억해야 할 것, ‘과정과 도구’

박재찬 안셀모 신부/ 분도 명상의 집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하느님을 참으로 많이 원망했어요.” “본당 신부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제라면 신자들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하지 않나요?” “성령 세미나를 하고 와서 치유를 받고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두 주일이 지나니 다시 모든 것이 공허해졌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온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무력함과 고통, 혹은 힘겨운 사람들로 인해 가톨릭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에 회의를 느끼게 된다는 고백을 들곤 합니다. 외적으로 육신의 질병이나 삶의 고통 앞에 하느님을 원망하며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고, 내적으로 사제나 수도자 혹은 교우들로부터 상처를 받아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신앙생활의 진보가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떠나거나 쉬는 이들이 영적인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정’과 ‘도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것, 영적 기쁨과 충만함, 영적 공허와 어둔 밤,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교우들과의 친교나 갈등 등 모든 것이 예수님과과의 일치를 위한 일종의 과정이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성된 이들이 아니라 예수님과과의 만남을 향한 여정 중에 있습니다. 자신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듯이 다른 이들도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가톨릭교회 안에서 성사의 도구들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을 배우는 다양한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산을 넘고 넘어가는 이 길에서 정상에서의 영적인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골짜기에서의 어둠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 인해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을 느끼기도 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나와 맞지 않는 힘겨운 사람 때문에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다시 주님을 향한 길을 걸어갈 때 또 다른 정상에 올라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산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 모든 여정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요한 14,6) 그분께서 함께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사랑을 배우는 도구들입니다. 심지어 고통과 시련도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힘겨운 사람이 다가올 때,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라고 원망하기보다는 ‘이 시련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라고 더 큰 선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시련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의 모든 것은 더 큰 사랑을 배우기 위한 과정이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할 때 눈앞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적인 자유로움 안에서 인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둠만으로도 족합니다

수정 성모 트라피스트 수녀원

당신의 밝음은 저의 어둠입니다. 저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저 혼자서는 당신을 알기 위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상상한다면, 저는 잘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이해한다면, 저는 망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안다고 확신한다면, 저는 미친 것입니다.
저는 어둠만으로도 족합니다. 아멘. (토마스 머튼)

올 초여름에 8일 동안의 연피정을 마쳤는데, 저희 수도회의 선배이신 토마스 머튼 신부님의 생애와 영적 변화의 여정과 하느님 체험이란 주제였습니다. 위의 기도는 강사 신부님께서 피정을 시작하시면서 저희에게 들려주신 것으로 토마스 머튼 신부님께서 미국 깃세마니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입회(1941년 12월 10일) 후 약 2주 뒤에 맞은 첫 성탄 자정미사를 앞두고 바친 것이라고 합니다.

20세기의 아우구스티노, 신비가, 예언가, 작가, 시인, 화가, 사진작가, 종교간 대화 운동가, 핵과 전쟁 반대 운동가로 불리며 현대의 탁월한 영성가로서 명성을 날리는 그분의 생애와 영적 여정은 그야말로 타락의 끝에서 하늘 위 끝까지 올라간 인간 영혼의 상승의 길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그 여정을 동반하시며 당신께로 이끌어 가셨는지를 잘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엄격한 침묵과 고독 속에 하루 일곱 번의 성무일도, 미사성제, 거룩한 독서, 육체노동을 통해 거짓 자아의 껍질을 벗고 우리 자신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참된 자아를 만나 그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발견하며 자기 자신이 되어간 이 수도승을 통해 하느님께서 관상觀想에 대한 그리스도교 전통적인 개념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현대화하는 데 공헌하고, 관상이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하나 됨의 체험과 초월적 일치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관상을 통해 하느님과 일치 체험한 토마스 머튼 신부님은 타인에 대한 개방과 영적 자유 안에서 종교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 초-문화적인 성숙에 다다르며, 관상을 통하여 관상 안에서 온 인류가 영적 가족이 되는 가능성을 발견하였고, 불교 전통과의 경험적 대화를 통해 종교 간 대화와 수도승 간의 상호 교류의 새로운 길을 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그분이 주신 참다운 나를 찾는 과정이 바로 관상이라 하신 토마스 머튼 신부님은 이것이 우리 시대에 참으로 관상이 절박하게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령도 지름길도 없는 영성생활에서 우리는 전 생애에 걸쳐 항상 초보자이므로, 처음부터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엇을 아는 데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주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서두에 적은 토마스 머튼 신부님의 기도가 더욱 절실히 해지는 오늘입니다.

당신의 밝음은 저의 어둠입니다. 저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저 혼자서는 당신을 알기 위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상상한다면, 저는 잘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이해한다면, 저는 망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안다고 확신한다면, 저는 미친 것입니다.
저는 어둠만으로도 족합니다. 아멘.

